

한·EU FTA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2009. 7.



연구진

- 원도연 •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 이강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이승형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모영환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김성민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성효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유태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이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1. 한·EU FTA의 타결로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들간의 전체적인 교역량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등의 공산품과 음식료품, 축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11개 국책 연구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국회 한·미 FTA 특위의 자료에 의하면 GDP와 후생 증가 측면에서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됨
2. 그러나 전북의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일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양돈, 양계 분야에서 타격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한·EU간 전북의 수출현황을 보면 對EU 수출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품목은 승용차로 162.7백만달러어치를 EU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북의 對EU 수출 가운데 24.5%를 차지하고 전국대비 3.12%를 차지함. 전북의 對EU 상위 10개 수출품목들 가운데 봉강, 폴리에스테르섬유, 그리고 기타 정밀화학원료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4. 한·EU간 전북의 수입현황을 보면 2008년도 전북의 對EU 수입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품목은 기타 기계류로 71.2백만달러어치를 EU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북의 對EU 수입 가운데 15.1%를 차지하고 전국대비 8.86%를 차지. 전북의 對EU 상위 10개 수입품목들 가운데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고지(폐지), 그리고 농약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5. 현재 전북의 한·EU간 수출입현황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하면, 자동차분야의 수출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특히 GM대우가 2008년 모기업의 부도위기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결론적으로 자동차 및 부품분야에서 14.6%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동차(부품)분야가 전라북도 수출의 53%를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북의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6. 특히 자동차분야의 경우 EU지역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높고 환경규제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증설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도 필요한 시점임. 상용차 분야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7. 농축산업 분야는 이미 여러 차례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음. 전반적으로는 곡물, 채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수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축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낙농가의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8. 농축산업 분야의 대응책은 전북 농업의 구조적 과제로 남겨져있는 규모화와 고급화, 브랜드화와 함께 최근 일부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생산원가 절감 및 유통 첨단화를 위한 광역화 등이 궁극적 과제이자 대책임. 단기적으로는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득보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구조를 혁신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9. 신산업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외투자가 현재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 등 풍력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산업화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R&D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섬유는 도내 기업의 약 11%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편직제 의류 시장 진출에 기대할 수 있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통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1. FTA 추진경과와 쟁점	1
1) 추진경과	1
2)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	1
3) 한·EU FTA 전반적 파급효과	4
2. 對EU 관련 교역현황	6
1) 우리나라의 對EU 교역현황	6
2) 전라북도의 對EU 교역현황	7
3. FTA에 따른 영향과 경제효과	9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9
2) 농·축산업	13
3) 신산업 및 기타산업	16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8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18
2) 농·축산업	19
3) 신산업 및 기타산업	21

1. FTA 추진경과와 쟁점

1) 추진경과

- 2007년 5월1일에 한·EU간 FTA를 위한 협상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2009년 7월 협상이 타결 되기까지 8차에 이르는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의 및 회담이 진행됨.
- 향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가서명, 번역된 협정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EU 의장국 각료들의 정식서명,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동의와 EU의회의 승인,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완료서신 교환 후 60일 경과 뒤에 효력발생(2010년 상반기 예정)

2)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

(1) 상품양허

- 우리나라는 처음 3년 이내에 품목 수를 기준으로 전체 공산품의 96%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이내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표 1〉 공산품 관세철폐

양허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EU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A)	91.0%	70.0%	97.0%	76.0%	89.9%	81.0%	87.3%	85.5%
3년철폐(B)	5.0%	22.0%	2.0%	17.0%	6.3%	13.2%	4.1%	6.9%
조기철폐(A+B)	96.0%	92.0%	99.0%	93.0%	96.2%	94.3%	91.4%	92.4%
5년철폐	3.5%	7.0%	1.0%	7.0%	1.9%	1.5%	4.0%	3.4%
7년철폐	0.5%	1.0%	-	-	-	4.2%	-	-
10년철폐	-	-	-	-	1.9%	-	4.6%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협상현황 및 향후 일정”

- EU의 경우 처음 3년 이내에 전체 공산품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

폐하고 5년 이내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관세를 철폐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 농산물은 예외적 취급 범위를 확보하여,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오렌지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과
- 냉동돼지고기삼겹살에 대한 관세(25%)의 철폐기간을 비교적 장기인 10년 이내로 하는데 합의하고,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돼지고기는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

〈표 2〉 관세철폐 품목 및 시기

철폐시기	EU의 對한국 수출	한국의 對EU 수출
즉시	자동차부품, 계측기, 타이어, 복사기, 서류절단기, 컬러TV, 냉장고(이상 8%), 직물외류(8~13%) 등	냉장고(1.9%),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2~5%), 평판디스플레이(3.7%), 편직물(8%) 등
	수입액 비중 70%	수입액 비중 76%
3년 내	의약품(6.5%), 기타 정밀화학제품(5~8%), 무선통신기기 부품, 펌프, 화장품, 중대형 승용차(이상 8%) 등	타이어(2.5~4.5%), 전자레인지(5%), 합성수지(6.5%), 베어링(8%), 중대형 승용차(10%) 등
	수입액 비중 22%	수입액 비중 17%
5년 내	접착제(6.5%), 기초화장품, 합성고무,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컬러TV, 카메라/수상기기, 소형 승용차(이상 8%) 등
	수입액 비중 7%	수입액 비중 7%
7년 내	건설중장비, 밸브, 베어링(이상 8%), 순모직물(13%), 기타 기계류(16%) 등	없음
	수입액 비중 1%	수입액 비중 0%

자료: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협상현황 및 향후 일정” .

(2) 관세환급 및 원산지 규정

-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이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 자동차 원산지기준의 경우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선에서 합의하고, 자동차부품

및 기타 자동차의 경우 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50%)을 적용하기로 합의

(3) 기술표준

-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자국 기준과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4)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운송·유통·건설 서비스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 한·미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통신서비스나 환경서비스와 같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도 일정 유예기간(통신은 2년, 환경은 5년)을 거친 후 추가로 개방

(5)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 품목(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
- 선행 상표의 사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계없이 계속 보장

3) 한·EU FTA 전반적 파급효과

□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전체적인 교역량은 증대

- EU는 인구 4억 9천만, GDP가 약 14조 3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도 평균 실행 관

세율¹⁾은 4.2% 수준으로 미국의 3.7%보다 높으며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또한 높아서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전반적인 무역량은 증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증가된 무역 양상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나타나며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자유무역협정 이전 관세율이 높았던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트럭의 경우 22%의 높은 관세가 폐지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로 인한 수출 증가가 기대됨
- 또한 수출비중은 매우 높으나 이미 무관세 협정을 맺은 선박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무선통신기기는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으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이미지 개선효과로 인해 간접적인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되기도 함
- 수입 역시 한국의 기수입비중이 높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 (정밀화학이나 의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산업기계 등)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은 일본산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보다 경쟁력이 있는 EU의 부품소재 산업은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연간 19억 달러의 규모임
- 음식료 산업에 있어서 기존의 위스키와 와인, 그리고 맥주의 수입관세는 각각 20%, 15%, 30%를 적용받고 있어서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가격의 하락은 국내 주류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며, 또한 치즈와 소시지 등 가공육의 수입관세 역시 36%와 18~30%이므로 관세 인하 혹은 관세 철폐는 내수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임

□ 한국경제에 미치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 효과보다 큼

- 국내총생산 및 국민 후생 복지의 증가로 측정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11개 국책 연구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국회 한·미 FTA 특위의 자료에 의하면 GDP와 후생 증가 측면에서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됨 (GDP 증가효과: 한·EU 3.08% vs 한·미 1.28% & Welfare 증가효과: 한·EU 2.45% vs 한·미 0.56%)

1) 여기에서 실행 관세율이란 수입품에는 여러 법적 근거에 의해 복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규정된 협정 세율이 있다. 이 세율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실행관세율로서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투자증권, 2009)

□ 한·EU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외부효과들이 존재

- 유럽연합과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다른 여러 지역,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교류나 직접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은 첨단 산업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는 국내 산업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상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또한 증가한 유사상품의 다양성은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과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유럽 기업들은 모두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렴한 생산비로 인해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EU FTA 의정서 13장에 의한 직접 운송 원칙에 의해 한국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고용시장은 활성화될 것임

2. 對EU 관련 교역현황

1) 우리나라의 對EU 교역현황

- 2008년 통관기준, 우리나라의 對EU 교역액은 984억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서 11.5%를 차지하여 EU가 중국(1,683억달러, 19.6%) 다음으로 큰 교역대상국에 해당.
-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액은 584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공산품이 582억달러, 농축임산물이 0.8억달러, 그리고 수산물이 1.0억달러를 차지하며, 수입액은 400억달러로 이 가운데 공산품이 379억달러, 농축임산물이 19.6억달러, 그리고 수산물이 0.9억달러를 차지

〈표 3〉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2008년 기준)

수출품목(관세율)	금액(억달러)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억달러)	비중(%)
선박(0~2.7%)	100	17.2	의약품(8%)	16	4.0
무선전화기(0%)	75	12.8	반도체제조용 장비(0%)	16	3.9
승용차(10%)	52	8.9	자동차부품(8%)	15	3.9
평판디스플레이(3.7%)	39	6.7	승용차(8%)	15	3.9
자동차부품(1.7~4.5%)	24	4.1	기타 정밀화학원료(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0%)	19	3.3	집적회로반도체(0%)	12	3.0
제트유 및 등유(3.5~4.7%)	16	2.7	기타 화학공업제품(6.5%)	10	2.4
경유(3.5~3.7%)	16	2.7	원동기(8%)	9	2.4
컬러TV(14%)	14	2.5	펌프(8%)	9	2.1
광학기기부품(2.9~6.7%)	14	2.3	기타 기계류(8%)	8	2.0
소 계	369	63.3	소 계	123	30.7
전 체	584	100.0	전 체	400	100.0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9.

- 품목별로는 선박이 EU를 상대로 100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17.2%)을 차지하였고, 승용차는 52억달러(對EU 수출의 8.9%), 자동차 부품은 24억달러(對EU 수출의 4.1%)의 수출을 기록
- 수입측면에서는 EU로부터 16억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對EU 수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였고,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각각 15억달러어치가 수입되어 對EU 수입액에서 각각 3.9%를 차지

- 상위 10개 수입품목들은 우리나라의 對EU 수입액에서 30.7%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개 수출품목들은 63.3%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이 상대적으로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

2) 전라북도의 對EU 교역현황

- 2008년도 전북의 對EU 수출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품목은 승용차로 162.7백만달러어치를 EU로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북의 對EU 수출 가운데 24.5%를 차지하고 전국대비 3.12%를 차지
- 전북의 對EU 상위 10개 수출품목들 가운데 봉강, 폴리에스테르섬유, 그리고 기타 정밀화학 원료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표 4〉 2008년 전북의 對EU 수출액(상위10개 품목)

단위 : 천 달러, %

수출품목	금액	비중	전국대비 비중	전국 수출액
승용차	162,692	24.47	3.12	5,219,771
* 봉강	88,121	13.25	85.59	102,958
기타 정밀화학원료	68,179	10.25	20.17	338,015
합성수지	67,731	10.19	6.50	1,041,359
폴리에스테르섬유	38,028	5.72	23.51	161,766
자동차부품	29,421	4.42	1.23	2,398,045
편직제의류	23,608	3.55	16.53	142,789
기타 화학공업제품	19,776	2.97	16.67	118,602
전선	15,550	2.34	8.74	177,861
베어링	14,270	2.15	12.84	111,163
전 체	664,874	100.00	1.14	58,374,752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8.

주 : 봉강은 보통 홈롤(grooved roll)을 사용하여 압연(壓延)해서 만드는 막대 모양의 강재(鋼材)로 막대강이라고도 함
전라북도의 대표업체로는 군산의 세아베스틸(<http://www.seahbesteel.co.kr/>)이 있음.

- 2008년도 전북의 對EU 수입액을 기준으로 최상위 품목은 기타 기계류로 71.2백만달러어치를 EU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북의 對EU 수입 가운데 15.1%를 차지하고 전국대비 8.86%를 차지

- 전북의 對EU 상위 10개 수입품목들 가운데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고지(폐지), 그리고 농약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표 5〉 2008년 전북의 對EU 수입액(상위10개 품목)

단위 : 천달러, %

수입품목	금액	비중	전국대비 비중	전국 수입액
기타 기계류	71,162	15.14	8.86	803,491
자동차부품	49,868	10.61	3.22	1,546,326
고지(폐지)	29,393	6.25	48.92	60,085
기타 정밀화학원료	29,062	6.18	2.35	1,234,347
원동기	27,828	5.92	2.94	945,756
농약	25,179	5.36	20.31	123,958
기타 기계류부품	19,524	4.15	8.76	222,754
기타 화학공업제품	11,419	2.43	1.20	952,390
기타 산업기계	10,982	2.34	3.18	345,133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10,297	2.19	61.17	16,833
전 체	470,025	100.00	1.18	39,980,746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8.

3. FTA 체결에 따른 영향과 경제효과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입 현황

□ 전라북도 수출은 자동차 중심

- 2008년 기준 전라북도 수출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 對EU 수출은 2002년 증가 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로 인하여 큰 폭으로 하락(2007년 351,209천달러 → 2008년 162,692천달러)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GM의 파산으로 인한 GM대우의 불안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

□ 자동차 수출에서 승용차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 승용차의 비중이 크고 상용차의 경우에는 매우 미약함

- 전라북도 자동차 수출이 승용자동차 162.7백만달러, 화물자동차 1.3백만달러, 모터사이클 0.8백만달러 로 화물자동차와 기타자동차의 수출비중이 각각 0.12%, 0.11%로 승용차 위주의 수출입

□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와 더불어 중요한 수출 품목

- 2008년 기준 전라북도 수출 중 자동차 부품은 7.5%를 차지함

- 최근 2007년까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건다가 급격하게 증가함(2007년 3,121천달러 → 2008년 29,541천달러)
- 최근 동유럽에 세계 유명자동차 회사들의 거점화로 수출이 크게 증가함
- 향후 EU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FTA로 인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영향 분석

□ 전라북도의 주요수출품인 자동차완성차 및 부품산업은 한·EU FTA 체결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전북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EU의 수입관세(승용차 10%)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협정에 따르면 중·대형승용차(배기량 1500cc 이상)는 3년내에, 소형승용차(1500cc 미만)는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

<표 6> EU의 자동차 관세율 현황

구분	관세율(%)
승용차	10
덤프트럭	0
트럭(엔진 2,500cc 이상)	22
트럭(엔진 2,500cc 이하)	10
특장차	3.7
자동차 부품	3 ~ 4.5

자료: 한·EU FTA의 자동차 교역 영향 및 EU 자동차시장 분석(2008).

- 현재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는 2.5%로서 EU의 수입관세보다 낮은 상황으로 한·미 FTA 보

다 더 많은 효과가 예상됨

- 상대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지역의 수입관세 철폐는 한국자동차의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져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 수출증가 예상은 무역특화지수로 예상할 수 있음

- 무역특화지수가 클수록 FTA로 인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무역특화지수가 0.3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對EU 무역특화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0.3을 초과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7〉 對EU 무역특화지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구	-0.09	-0.02	-0.04	-0.37	-0.08
가전	0.79	0.79	0.72	0.77	0.66
고무/플라스틱	0.48	0.48	0.49	0.52	0.47
반도체/전자부품	0.39	0.42	0.53	0.57	0.56
비철금속	-0.83	-0.69	-0.68	-0.61	-0.53
석유화학	-0.27	-0.32	-0.24	-0.19	-0.15
섬유	0.42	0.33	0.26	0.34	0.32
음식료품	-0.87	-0.9	-0.91	-0.87	-0.86
일반기계	-0.39	-0.36	-0.31	-0.33	-0.38
자동차	0.6	0.61	0.57	0.5	0.33
정밀기기	-0.73	-0.75	-0.7	-0.52	-0.48
정밀화학	-0.6	-0.57	-0.69	-0.7	-0.73
조립금속	-0.07	-0.16	0.04	-0.11	-0.09
조선	0.93	0.98	0.98	0.99	0.94
철강	-0.14	-0.43	0.06	0.22	0.18
컴퓨터	0.77	0.69	0.6	0.32	0.25
통신기기	0.91	0.91	0.89	0.9	0.87

자료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KIEP (2005).

- 자동차산업이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므로 지역간 활발한 분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

므로 향후 분업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경쟁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수출입탄력성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먼저 추정 결과 승용차 수출의 경우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가솔린엔진 중형승용차, 디젤엔진 중형승용차 및 대형승용차의 큰 폭의 수출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의 중형승용차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EU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디젤엔진 중형승용차의 경우 수출수요의 장기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아 한·EU FTA가 상당한 수준의 승용차 수출증대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승용차 수입의 경우 한·EU FTA의 체결로 인한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로 EU로부터의 중·대형승용차, 특히 대형승용차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북의 업체와는 경쟁관계가 없는 관계로 효과가 미약할 것임
- 자동차부품의 對EU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를 통해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HS 870870(로드휠 및 그 부분품), HS870891(방열기와 그 부분품), HS 870894(운전대·스티어링컬럼 및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HS 870829(에어백 및 기타 차체부품), HS870892(소음기, 배기관 및 그 부분품), HS 870893(클러치와 그 부분품), HS870899(기타 자동차부품 및 부분품) 등의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및 부품분야의 한·EU FTA로 인한 효과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8〉 한·EU FTA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효과(2004년 기준)

구분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무역수지효과
일반차량 및 부품	14.6%	8.0%	16.4%
기계	2.5%	9.5%	4.9%

자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KIEP(2005).

- 수출증대효과를 보면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14.6%의²⁾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무역수지는 16.4%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자동차

2)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아 가솔린엔진 승용차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아 1%의 가격하락이 15%의 수출증대를 가져온다고 예측하기도 함(한국경제연구원, 2008)

및 자동차부품이 전북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 농 · 축산업

□ 상품양허안을 포함한 협정문이 공개되어야 협상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발표된 내용 등을 기초로 농축산업분야의 파급영향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곡물

- 쌀과 보리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밀의 경우 이미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두와 감자 등의 경우 EU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 : 채소류는 EU와 우리나라간에 교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내 수입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및 전북지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EU가 관심을 가지는 토마토의 경우 토마토가공품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식품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의 경우 관련 기업이 거의 없어 부정적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임

· 신선토마토는 EU로부터 운송 및 저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전북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과수 : 오렌지와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및 전북지역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오렌지의 경우 EU국가 중 수출이 활발한 스페인은 경쟁력이 높아 계절관세의 적용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대체과일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으나, 수입다변화에 의해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포도도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피해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출하기에 신선포도의 수입가능성은 제한적이어서 전북지역 포도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미할 것이지만, 포도주스, 포도가공품 등 포도 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과와 배는 중장기적으로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철폐, 기호 변화, 우리나라 선호품종 재배 증가시 수입증가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미국 사과와 배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그 피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물 : 양돈 및 양계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및 전북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대부분이 수입되고 EU로부터의 수입실적이 거의 없으며 EU의 가격 및 품질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
- 돼지고기는 FTA체결 이전에도 EU로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FTA체결로 인한 관세철폐는 국내 양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냉동삼겹살 수입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1,901개의 농가에서 1,273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는 관세철폐가 적용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닭고기는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이 어려워 가정소비용은 국내산 냉장육 중심으로, 업소용은 닭날개 중심의 수입산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내 닭고기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하림과 전북지역 양계농가(1,084호 367십만수)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부위별로 경쟁력을 가진 EU산 닭고기가 관세철폐로 더 낮은 가격에 수입될 경우 (주)하림의 원료공급 체계가 변화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음
- 낙농품의 경우 국산 원유가격은 국제가격보다 2~3배 높고, 분유 제조원가도 수입 분유 가격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며, 분유, 버터 등 보관성이 높은 유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아 EU산 낙농품 수입시 국내 및 전북 낙농가(553호, 39천두)는 생산 감소와 소득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매일우유 및 롯데우유, 다농 등 낙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치즈 전체시장도 커짐으로 인해 기업차원에서는 치즈원료를 저렴하게 수입하여 원가부담이 줄어 가공 치즈 매출의 확대 가능성도 있음. 또한 품질,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있어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모짜렐라 치즈 등의 경우 신선도 및 기호성 측면에서 대응할 경우 경쟁력이 있음

□ 와인

- 15%수준의 관세철폐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와인가격이 12~15% 인하될 것으로 추산됨
- 이로 인해 와인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과실주 산업,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복분자주, 오디주, 산머루주 등이 큰 비중을 갖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3) 신산업 및 기타산업

(1) 신재생에너지

□ EU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라북도 및 새만금의 해외 투자유치 촉진 기대

- 독일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적 경쟁체제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EU 국가 중 독일의 태양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관리업체를 포함한 기업수 및 종사자는 약 11,000개, 42,500명이고 셀·모듈·부품회사는 약 80개 정도이어서 EU 기업 유치시 도내 태양광산업 value chain의 완성도 및 집적도를 높일 수 있음
-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태양광 분야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EU 시장의 약 70%를 점유
- 풍력시장에서도 독일은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미국이 풍력발전 누적용량에서 독일을 제치고 1위로 급부상
- 덴마크의 Vestas社의 대형풍력 및 해상풍력분야에 진출 기대
 - Vestas社는 2007년 현재 세계 풍력발전기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풍력시장과 해상풍력시장의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
 -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현대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풍력발전기 시장확보에 기여
- 현재 경쟁력이 약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정착 및 구조고도화, 해외시장진출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른 관련 부품수요 급증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 태양광, 풍력의 산업간 교류는 산업화 기반의 조기 정착, 해외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시장확보, 국산부품의 양질화 및 대중화를 통해 R&D → 기술사업화 지원 → 생산 →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
-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걸음마 단계이고 수출시장 진입을 못한 도내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산업화 기반을 조성중인 도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해외기업의 시장잠식이 우려

(2) 섬유산업

□ 섬유외의 경우 화섬을 소재로 한 제품이 對EU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FTA 체결 이후 긍정적 영향 기대

- 섬유는 EU측 평균관세율이 8%로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10% 정도로 높아 수입관세 철폐시 국내 중·고가 의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
- 도내 기업의 약 11%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편직제 의류 시장 진출에 기대할 수 있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통해 시장 창출이 가능
- 하지만 5인 이하인 사업장을 가진 도내 섬유업체가 70% 정도이므로 시장경쟁력 확보는 의문시 되는 상황
- 탄소섬유외의 경우 영국, 독일, 벨기에 등의 국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제고 기대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 긍정적인 효과 기대, 적극적 투자의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 자동차의 경우 수출 및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 한·EU FTA로 인하여 14.6%의 수출증대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 관세는 철폐되나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걸림돌

- 관세장벽의 철폐로 무역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는 아직도 존재함
- 특히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EU가 강한 편이고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하이브리드카 개발과 같은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공차원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 경쟁력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한·EU FTA를 통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한·EU FTA로 인하여 무역특화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는 단기적으로는 한·EU FTA에 의해 보전이 될 것이지만 이 효과가 상쇄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이

러한 요인을 파악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농·축산업

(1) 기본방향

□ 한·EU FTA로 영향을 받을 중요한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포도(가공)와 토마토(가공) 등으로 예상

- 이중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와의 FTA에서도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축산업 부문의 효율적 대응과 선제적인 대책이 특별히 요구됨

-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대책, 소득보전 대책 등의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한·미 FTA나 한·EU FTA 등의 이행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함

· 경영안정형 직불제의 조속 실시

- 경쟁력이 약한 품목과 고령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에 따른 적절한 보상지원과 함께 폐업보상농가의 생산 및 사육 제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국내 소비자의 안전의식에 맞춘 품목별 고품질 친환경농업 추진과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을 통한 비가격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EU로부터 저렴하게 수입되는 농축산 원재료의 경우 가공을 통해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로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공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2) 품목별 대응방안

□ 양돈분야

- 소비자 신뢰 및 안전성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종돈 보급, HACCP 추진, 생축운반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양돈의 생산기반시설인 축사 현대화를 추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함
- 양돈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가축담보 기반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함
-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계열화 추진을 통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여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도록 함

□ 낙농분야

- 유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집유장에 대한 HACCP 적용 및 유가공 공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함
- 원유의 수급관리제도 개편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계절별 수급 불일치를 완충하도록 함
- 기능성 유제품 개발 지원 및 우유소비 확대 등 소비촉진을 활발하게 함

□ 양계분야

- 계열업체 중심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질병관리 효율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함

□ 과실주분야

- 과실생산 및 가공의 광역연합화(오디 : 부안·남원, 복분자 : 고창·정읍·순창, 산머루 : 무주·진안·임실)를 통한 생산량 조정 및 유통시스템 일원화 추진
- 과실의 품질고급화 추진 및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매출을 유지하도록 함

3) 신산업 및 기타산업

□ 도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적극 모색 필요

- 신소재, IT 융합분야에서 EU의 기술을 도내 산업과 접목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 전라북도 중점산업인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과 연계한 IT 융합산업 창출
 -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승용차(24.47%) 뿐만 아니라 기계부품(봉강(13.25%), 베어링(2.15%)), 전라북도 지연산업인 섬유산업과 연관된 편직제의류(3.55%)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필요
 - 상호 협력체제 구축, 기업의 적극적 M&A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기타 정밀화학 원료, 합성수지, 폴리에스텔 섬유 등에 대한 사업연계 및 추진전략의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기타 정밀화학 원료(13.25%), 합성수지(10.19%), 폴리에스텔 섬유(5.72%)와 같은 화학제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과 지원책 마련 필요

- EU의 경우 범용제품보다는 특수제품 수출이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도가 줄어들고 기술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음
- 결국 도내 기업이 EU의 하청형태로 변하게 되어 end user의 물품 공급계약만 기다리는 등 제2의 섬유산업과 같은 상황 발생 우려